

- 환영:**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Home!
- 구약성경필사:** 내년 창립 110주년 기념사역 구약성경 필사
- 2023년 추수감사주일:** Happy Thanksgiving! 지난 한 해 인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찬양대와 장구팀의 특별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예물을 드리고, 감사절 식탁(1여선교회, 속회)과 강단장식으로 섬긴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 선교후원모임:** 오늘 친교 후 회의실 / 참석자: 신도대표, 임원회장, 행정/사역위원장, 속장, 남녀선교회장 등 / 논의사항: 연말 선교후원지 결정
- 수요 선교세미나 넷째시간:** 11월 29일 오전10시, 강사: 담임목사, 주제: 해외선교의 비전과 준비 / 남선교회, 예배사역부 주관 및 점심준비 /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수요일(22일)은 휴강입니다.
- 남녀선교회 정기총회:** 다음 주일(26일) 친교 후 / 내용: 23년 사업 및 재정보고, 24년 회장 선출, 기타 안건 등
- 교인총회:** 12월17일 주일 낮12시 인도: 김선희 감리사 / 각 위원회와 기관 보고서를 12월 첫주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 4분기 정기임원회: 12월3일 주일 친교 후
- 속회모임 안내:** 감사속 30일(목), 샬롬속 30일(목), 주향한속 28일(화) / 속회 리더(속장, 인도자)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토요일아침예배 :** 11월 25일 오전 7시30분
- 주중 특별모임:** 북클럽 (격주 토 오전8시, 2층 도서실) / 장구팀 (매주 금 오전10시, 2층) / 미술반 (매주일 친교후 2층)
- 주일학교:** 주일학교 예배는 오전10시 연합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친교 후 2층에서 성경공부를 진행합니다.
- 청년부:** 예배 후에 청년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합니다. 청년 부실/도서관 리모델링 / 청년연합수련회: 11월 24-26일 (금-주일) 강사: 민예인 전도사 / 6명 참석
- 담임목사 동정:** 북가주 금식기도원행 20일(월)~23일(목)
- 주일친교:** 오늘: 제1여선교회, 속회 / 다음 주일: 자원자 / 친교로 섬겨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뒷정리도 부탁드립니다.
- 교우소식:** 연락하신 교우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건강회복: 이종혁 권사, 주영옥 권사, 최정연 권사 / 출타: 손수락 장로 가정

■ 2023년 표어와 목표 ■

표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 목표: 한 영혼 전도하기

■ 2023년 기도제목과 성구 ■

“한사람이 한사람 전도하여 성전의 빈자리를 채우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1:2)

■ 신앙생활의 핵심가치 ■

-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Worship)
 -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육공동체 (Next Generation)
 -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공동체 (Evangelism)
 - 사랑의 나눔이 있는 건강한 소그룹공동체 (Fellowship)
 -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제자공동체 (Discipleship)
 -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는 나눔공동체 (Service)
- 1905년에 태동하고 1914년에 창립하여 한 세기를 뛰어넘는 역사를 간직한 오클랜드교회는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을 위해 헌신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세상과 이웃을 품는 사랑을 간직한 자랑스러운 한인 이민교회입니다.

모임	시간	Oakland Sunday School	
주일예배	오전10시(대면/영상)	Children	[Worship] Sun 10am
수요찬양예배	오전10시(대면/영상)		[Bible Study] Sun 11am
토요일아침예배	오전7시반(대면/영상)	Youth	[Gathering] After Worship
주일아침말씀방	-	Young Adults	
주일중보기도모임	-		

[오클랜드 한국학교 Korean School] okschool.org / 개강 8월19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정현섭
【Lead Pastor】 Hyun Jung
hsjungusa@hotmail.com
- 【전도사】 민예인
- 【행정간사】 김하영
- 【지휘자】 최희숙
- 【반주자】 공은선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추수감사주일 Thanksgiving Sunday



Oakland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737 E 17 Street, Oakland, CA 94606
 (510)451-9076 www.newokumc.org

The Church overflowing with Grace and Peace



감사주일예배

2023년 11월 19일

대면 및 라이브영상예배

인도 정현섭 목사 오전 10시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인트로 영상

경배와 찬양 Worship Praise / 민예인 전도사

신 앙 고 백 Confession / 사도신경

찬 송 Hymn /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회 중 기 도 Prayer / 황원규 권사(한) Nicole Han(Eng)

찬양대 특송 Choir Anthem / "감사하세 / 감사"

말 씬 봉 독 Bible Reading / 데살로니가전서 5:16-18

설 교 Sermon / 정현섭 목사

"감사 중의 감사"

새가족 환영과 알림 Announcement /

❖ 봉헌 및 찬송 Offering, Hymn / "거룩하신 하나님 Give Thanks"

❖ 축 도 Benediction /

❖ 이 표는 일어서서 합니다. ❖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11월 예배섬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일	주일회중기도	주중예배	11/12월 예배섬김
5	담임목사	수요오전예배	[안내위원]
12	정지선 장로	오전10시	곽송자 권사 강비비안 권사
19	황원규 권사 한상현 학생 추수감사주일	토요일아침예배	[봉헌위원]
26	조종애 선교사	오전7시30분	강순자 권사

[수요/토요일예배: 대면 및 라이브영상예배]

수요오전(11/22/개인적으로) / 토요일아침(11/25) 오전7시30분

Welcome!

우리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족 환영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함께 교우들과 더불어 애찬을 나누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내를 따라 목양실을 방문해 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방 문 자	엄희 집사님	한국	엄영옥 권사
	제임스 정 성도님		정지선 장로
	김광자 성도님	한국	수지 자매

향기로운 예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11월12일/합계: \$3,110.00]

[십일조] 배현의 정신애 정현섭

[감사헌금] 김국희(김치) 남승연 남정우(추수감사) 배현의 송의섭 정현섭(결혼) 조재각/윤경(추수감사)

[주정/월정/주일헌금] 강석훈/제나 강일성 김국희 김단진 김정필 남정우 민예인 박혜숙 배현의 윤경섭 윤행자 이강은 이선희 정기호 정신애 정지선 정현섭 최인택 홍승일

[지정헌금] 배현의(파라과이) 조재각/윤경(한국학교)

지난 주일/주중예배 참석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행2:46)		
주일대면예배	60명	수요/토요일예배	23/17명

속 회	속장/인도자	모임보고 / 모임안내	선교후원
믿음 사랑속	윤숙자/오금희	[보고] 11/17/금/교회(신마사)/5명	나눔의동산 파라과이1
감사	이문자/황원규	[안내] 11/30/목/3시/황원규 권사택	나눔의동산
샬롬	정정자/정지선	[안내] 11/30/목/12시/김충식 집사택	예수사랑
와보라	손성리/손수락	[보고] 10/27/금/교회/5명	멕시코
온유	송재현/곽태길	[보고] 11/17/금/장유익 권사택/11명	파라과이2
기쁨	양경혜/최인택	[보고] 8/25/금/최인택 장로택/4명	-
주향한	현순정/이종혁	[안내] 11/28/화/6시/현수남 권사택	-
청장년 청년	정지현/민예인	[보고] 9/16/토/교회/11명	기아대책

Good News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감사절기에 예레미야서를 읽게 하시는 이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모암처럼 너무 편안하고 안이하면 신앙에 찌끼가 낄 수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떤 찌끼가 끼느냐면, 영적인 삶에 대한 무관심의 찌끼가 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장애가 없으면 능력도 없습니다. 장애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없습니다. 너무 평안이 계속되면 영적인 날개가 퇴화되어 버리고, 기도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무관심해 집니다.

여러분! 고난은 찌끼를 없애고 냄새를 없애고 더욱 향기롭게 만듭니다. 고난은 인생을 더욱 값지게,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합니다. 고난 당하면 회개하게 되요. 편안할 때 누가 회개합니까? 고통스러우면 누구든지 회개하게 되죠.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감사절을 지나면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 볼 수 없는 메시지 가운데서 감사의 고백을 발견하라고, 눈물과 아픔만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게 하십니다.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다 알고 나서야 참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버려야 하나님 발견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인생의 참 기쁨을 발견하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길이라는 인생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과 축복의 열매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축복과 고난을 잘 비벼내는 삶입니다. 축복도 받고,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둘이 함께 만나는 곳이 바로 감사의 자리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언제나 축복과 더불어 고난이 오고, 고난이 왔는가 하면 또 축복이 오는 축복과 고난의 비빔밥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11월18일 토요일아침예배(예레미야 48장) 묵상 중에서

[기쁨의 언덕으로]	20일(월) 예레미야 48장	21일(화) 예레미야 49장
매일성경통독과 묵상	22일(수) 예레미야 50장	23일(목) 예레미야 51장
11월: 예레미야	24일(금) 예레미야 52장	25일(토) 예레미야애가 1장